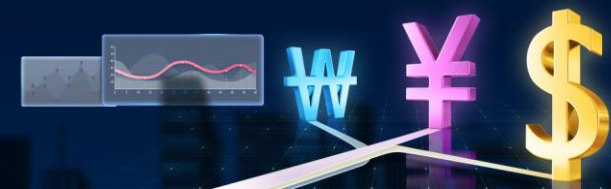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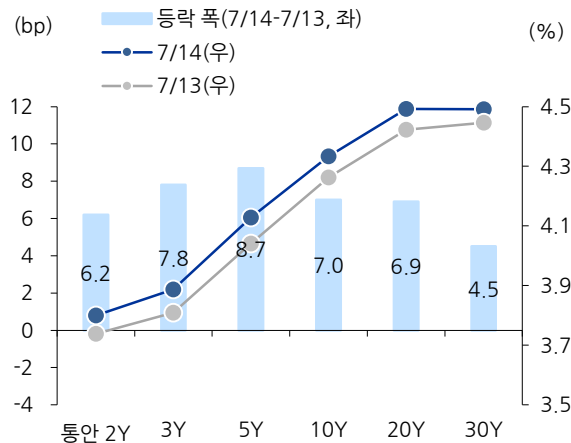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7/1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87%	7.8	10.7	93.4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33%	7.0	12.0	94.8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4.6	45.4	43.3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72	-28.0	-38.0	-272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05	-73.0	-115.0	-787.0
	미국채 2년물	4.196%	-9.0	0.8	72.4
	미국채 10년물	4.592%	-3.2	4.0	42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9.6	33.9	36.4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139%	1.1	14.5	28.4
	호주국채 10년물	4.902%	4.2	8.1	14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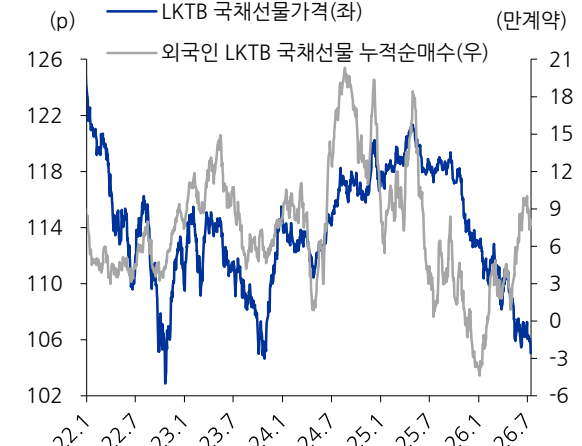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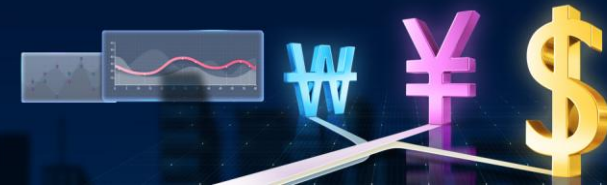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전쟁 추이 및 금통위 경계 지속.
-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된 영향이 컸음. 월러 연준 이사의 근원 인플레이션 관련 매파적 발언도 원인.
- 오후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도 영향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불 스티프닝 마감.
- 6월 CPI의 예상치 하회로 단기물 위주로 금리 하락폭 확대. 지난달 국제유가 하락 반영한 영향.
- 케빈 워시 의장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발언하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음. 이후 금리 하락폭 일부 반납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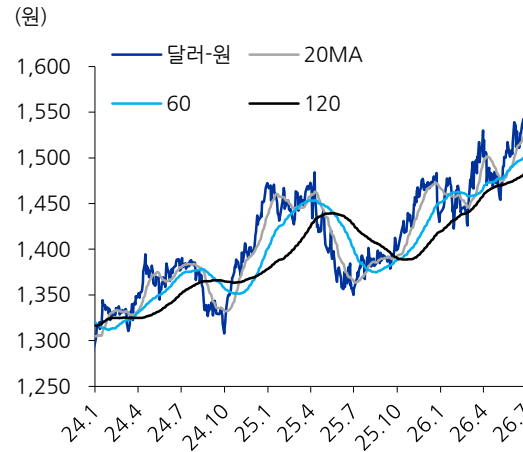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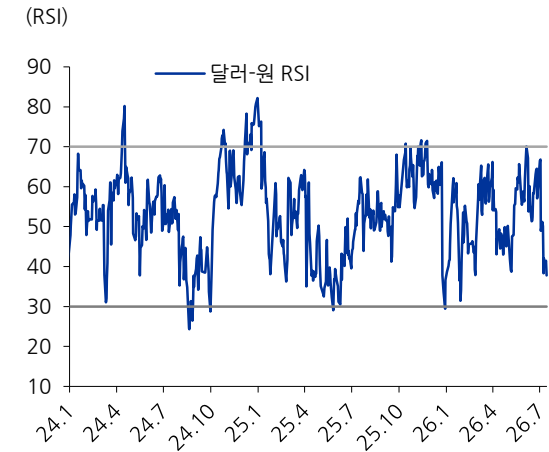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7/14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93.00	-0.7%	-2.3%	3.8%
	달러지수	100.94	-0.4%	-0.2%	2.7%
	달러/유로	1.14	0.3%	0.1%	-2.8%
	위안/달러(역외)	6.77	-0.2%	-0.4%	-3.0%
	엔/달러	162.17	-0.1%	0.1%	3.5%
	달러/파운드	1.34	0.3%	0.2%	-0.5%
	헤알/달러	5.09	-0.8%	-1.3%	-7.7%
상품	WTI 근월물(\$)	79.34	1.5%	12.6%	38.2%
	금 현물(\$)	4,053.66	1.3%	-1.3%	-6.1%
	비트코인(\$)	64,695	3.8%	1.1%	-26.4%
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에 -10.40원 하락한 1,493.00원에 서울환시 마감(야간 1,490.50원).
-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관련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물 환을 대거 매도하며 원화 상승을 견인. 한화오션 등 중공업 기업의 추가 선물환 매도 기대 또한 원화 상승 압력으로 작용.
- 외국인의 코스피 +9,600억원 순매수와 아시아장 달러 강세 흐름 완화에 뚜렷한 환율 상승 요인이 부재했음.
- 수출기업 환전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와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 하회로 원화 상승 압력 높아짐. 코스피가 고점 대비 -30%가량 조정받으면서 외국인 순매도 압력 축소됐을 가능성 또한 원화에 긍정적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소비자물가 예상 하회에 하락 마감.(DXY -0.4%)
- 미국 6월 CPI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달러 하락을 주도. 헤드라인 CPI는 전월비 -0.4% 하락했고(예상: -0.1%), 근원 CPI는 전월비 0.0%(예상: +0.2%) 기록.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약화되며 미국 국채금리는 단기물 중심 하락(2년물: -9bp, 10년물: -3.2bp).
- 한편 중동 리스크에 달러는 낙폭을 일부 회복. 국제유가는 미-이란 양국의 공습 이어지며 상승(WTI +1.5%).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계획을 철회했으나 시장 영향은 미미했음.
- 미국 CPI 결과에 연준 인상 우려는 완화됐으나 출구를 찾기 못하고 있는 중동 갈등이 달러 하단 지지할 전망.